값싼 샌드위치 패널 불나면 속수무책

평동산단 보온재 공장 화재 피해액 80억대

한번 발생하면 대형 피해 … 법규 보완 시급

지난 6일 평동산단에서 발생한 보온재 제조 공장 화재〈광주일보 5월7일자 6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건물이 화재 참사 때마다 위험성이 지적됐던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이뤄진 탓에 진화를 더디게 했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평동산단 화재, 피해액 커= 지난 6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옥동 평동공단 내 한 보온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체 건물 2개동(약 2100㎡)이 전소했고 인근의 기아차 협력업체 공장 2개동(약 1500㎡)도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경찰과 업체측은 공장 내 제품과 자재를 비롯, 고가의 가공 설비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액수가 70~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공장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물이 잘 투과하지 못한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등은 "고온압축 파쇄기가 위치한 공장 쪽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화재 키우는 샌드위치 패널=화재로 전소한 3개 동 모두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됐다. 최근 안성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 진화를 더디게 했다.

샌드위치 패널은 외부에 스테인리스 등 두꺼운 철판 사이로 목재,종이, 스티로폼 등 단열·방음재가 채워져 있다. 불이 나도 철판이 물길을 막는데다 가연성이 높은 내부 자재의 열기는 방출되지 않아 진화가 쉽지 않다. 하지만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구조 변경이 쉽고 공사 기간도 짧아 애용되고 있다.

평동 산단의 한 관계자는 "공정기간이 짧고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평동·하남산단 대부분의 공장은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 상 3000㎡ 이상 창고(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나 1000㎡ 이상 공장에는 패널에 난연(불에 잘 타지 않음)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확인하긴 힘들고 창고의 경우 작은 규모로 나눠 짓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딱 걸렸네"

광주·전남 30곳 적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을 저지른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집 30곳 등 전국 770여곳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단속에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3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3곳, 전남에서는 27곳의 어린이집이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부실한 급식을 제공해 비용을 남기는 등 다양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경우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경우가 8건, 급·간식 부적정 9건, 회계부적정 10건 등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교사배치, 총정원 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간식 부적정(159건)과 회계 부적정(154건), 보조금 부정수급(4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적발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의뢰했다.

지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수납한 도액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앞으로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우in참 〈8811〉 김종두

'학교 폐쇄' 성화대 학생들 위자료 받는다

재단·국가 상대 손배 승소

재단비리 문제로 학교가 폐쇄된 강진의 성화대 학생들이 학교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 116명이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이사진·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운영과정에서 이사장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재단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갑작스럽게 폐쇄되는 바람에 학업이 중단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림학원과 이사진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재학생 77명에게 각각 150만~300만원, 폐쇄명령 후 졸업한 학생 23명에게는 1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폐쇄명령이 나기 전에 졸업한 16명에 대해서는 졸업 후 상당기간이 지나 학교 폐쇄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성화대는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2월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폐쇄 조치된 대학 학생들이 집단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화재 진압 물 뿌리는 어린이들 '2013 빛고을 안전체험 한마당'이 7일 오전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소방대원과 함께 화재진압용 호스를 직접 들고 물을 뿌려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케냐인 유학생 숨진 채 발견

지난 6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원룸에서 케냐인 A(24)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최근 치통, 두통, 압통 등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2010년 전남대에 입학했다. 경찰은 케냐 대사관 측과 협의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쌍나팔

도서관서 스마트폰 훔친 혼성 절도범

○…대학교 도서관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에 놓인 스마트폰·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혼성 절도범 4명이 경찰서행.

○…7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강모(24)씨 등은 지난달 12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도서관에서 임모(21)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67회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의 물품·현금을 훔친 혐의.

○…광주 모 직업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가출한 뒤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렌트카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교내 CC-TV 화면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 /이종행기자 golee@

성범죄자 신상정보 건물번호까지 공개

정부, 다음달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6월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내왔지만 앞으로는 우편수령 대상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경찰 "원청 대림산업 책임 크다"

여수 폭발사고 대림 4명 등 5명 영장 신청

경찰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물어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은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장 등 대림산업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저장탑(사일로·silo) 맨홀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장탑 내부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한 안전 관리가 결과적으로 저장탑 폭발사고로 이어져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빚어졌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폭발 사고 현장 정밀 감식 결과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한 뒤 관련자 1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왔다.

경찰 안팎에서는 17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 사고인데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 대해 '구속 의견'을 올렸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영장 신청 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왔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에 특별감독관 20명을 투입해 감독을 벌여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